

민주 '빅3' 경선 레이스 앞두고 노선 차이

정 '강공' vs 이 '의리' vs 이 '실용'

〈세균〉 〈낙연〉 〈재명〉

정세균 “검찰·언론개혁 반드시 이뤄야”
이낙연 “죽는 한 있어도 대통령 지킬 것”
이재명 “산업재편 위기, 포용 성장 가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주자들의 색깔도 두드러지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미스터 스마일'의 은화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검찰·언론개혁을 화두로 꺼내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조직이 돼버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에는 "언론은 왜 무서울 게 없을까. 마땅히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시했다. 후발주자인 정 전 총리가 '5%' 지지율을 넘어서기 위해 친문 열성 당원에 구애하는 선명성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0일 "개혁적 면모를 부각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전통적 지지층에서 반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발전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 의견에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국무총리)를 했는데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사기다.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이 대

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현 정부를 우회 비판한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와 관련, 노무현·조국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이 거의 한 가정을 거의 소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초 사면론 발언으로 이탈한 강성 지지층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 정책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언급하며 "잘못한 부분은 대안을 내놓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평가를 받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중립적 평가를 견지한다. 그는 20일 현역 의원 지지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 창립 행사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에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전날에는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5·18에 대해서 나름 가진 것이 있을 테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산업재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되,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실용 노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권 수위주자로서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포석으로 해석된다. 측근 인사는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며 "중도는 철저히 실용이다. 좌우 무관하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환 간사(오른쪽)와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간사(가운데)가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통과시키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사회권 시비로 파행...與, 간사 선임·법안 단독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이 편안해졌느냐, 입대차 3법 날치기 처리해서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는 퇴장했다.

민주당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재선인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 단초가 됐다. 백해련 의원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간사 선임은 여당 간사였던 백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된 데 따른 것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의원의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경전 끝에 오후 5시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체회의를 속개,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첫 내광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광주일보 인터뷰

“호남활동 인사 비례에 배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일 "같은 정당에서 열린 정당으로, 세대와 계층·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에서 인터뷰를 갖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지역·세대를 나누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용광로라는 뜻은 국민의힘이 이제 지역과 가치, 세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통합하고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60대 이상의 영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20대는 물론 호남과 수도권까지 확장해야 당이 살아남 수 있다.

-당 색신이 화두다. 색신에 대한 방향은.

▲우선 당이 유능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수는 유능하다'고 했는

'60대·영남' 벗어나 호남·수도권 확장
세대·계층·지역 간 통합의 정당 돼야
윤석열·안철수 야당 플랫폼 들어와야
광주정신 기리려 첫 방문지 선택



데, 당이 신뢰감을 잃으면서 유능함이 사라졌다. 그동안 인재영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유능한 인재영입이 어려웠다.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셔야 한다.

-외연 확장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안철수 등도 포함되나.

▲그렇다.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야권의 유력한 후보다.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윤 전 총장도 야당 플랫폼에 들어와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당 밖의 야권 대권 주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하고,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가 되면 모든 분들을 만나 공정하고 열린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 신뢰를 쌓고 모셔올 계획이다.

-초선들 중심으로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놓고 '도로 한국당'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도 정당의 역사다. 거대 여당에 맞서 견제하려는 여당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는 (탄핵 이후) 야당이 깨지지 않도록 힘들게 당을 지켜왔던 시기다. 이 과정에 잘 못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 야당의 역사를 도로 한국당이라고 평가하면 안된다. 당시 잘못된 것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민들이 '또 선거 때만 저러는구나'라는 점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단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최근 5월 유족회에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을 공식 초청한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보여주기식 행

보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 '서진정책' 중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25%를 호남 출신으로 배치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그동안 늘 호남출신 비례대표를 찾아왔다. 하지만 호남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호남 출생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전진 배치하겠다.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유는.

▲우리 당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5·18에 인색한 부분이 있었다. '5월 정신'이 호남 중심, 민주당 중심이 되다 보니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광주에 진정성을 보이고, 광주정신을 기리기 위해 첫 방문지로 광주와 5·18 민주묘지를 택했다.

-당내 5·18 왜곡 세력에 대한 징계 부분이 미흡했다.

▲그동안 징계가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당의 강령에 5·18 정신을 명시해 앞으로 우리 당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감동인 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강령에 넣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제대로 이어가겠다. 5·18 정신을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더 많이 고민하겠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직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치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